http://dx.doi.org/10.30594/kss.2022.12.15.11 349

조선시대 서원의 누각 도입과 정침 구현*

조 재 모**

Ⅰ. 서론
Ⅱ.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정형성
Ⅲ. 서원 누각의 등장과 발전
Ⅳ. 정침 이론의 모색과 지역 모델
Ⅴ. 결론

【국문초록】

본 논고는 조선시대의 서원 건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학궁이라는 원론적인 건축 모델의 존재와 그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건축의 속성상 지역의 기술, 관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종묘, 궁궐 등을 포괄하여 거의 모든 건축의 유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서원의 경우에도 온돌과 마루의 사용 등 조선의 건축관습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각의 도입과 발달, 정침의 재해석 등 몇 가지 지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누각은 조선 서원 건축의 특별한 건축유형이자 조선 서원의 이상을 잘 드러내는 장치였다. 서원의 누각은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경험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무변루에서 양쪽에 온돌방을 들이고,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둔 것은 향교의 명륜당 평면과 매우 닮아있다. 멀리는 고대 정침의 평면형이나 궁궐, 객사의 사

* 이 논문은 2022년 5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지역성과 운영실태”에서 발표한 ‘누각과 정침 구현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zozemo@knu.ac.kr

례들과 연결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별도의 강당을 보편화하기 시작한 서원에서는 누각의 방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이후의 서원들은 옥동서원 청월루와 같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를 마루로 마감하는 개방적인 누각으로 전형화되었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대표되는 고대 정침의 건축적 실천도 주목되어야 한다. 강당, 사당, 누각, 동서재 등이 완비된 서원의 건축적 전형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정침을 구현하여 학궁에서의 예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응도당이다. 이론적으로 해석된 정침의 구성을 구체적인 건물로 실현하는 데에는 결국 지역의 건축술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응도당은 완전한 목구조에 마루로 마감한 조선적인 건축 수법으로 완성되었다.

주제어 : 서원건축, 누각, 정침, 지역성

Ⅰ. 서론

지난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당시의 요약문에서는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등재기준으로는 (iii)을 적용하여 서원이 조선을 강력한 성리학적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받았다.[1)]

1)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문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https://whc.unesco.org/en/list/1498). 영문 공식명칭은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며, 16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간 건립된 초창기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정된 등재기준(iii) 외에도 신청 단계에서는 등재기준(iv)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한국의 서원이 특정한 건축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속유산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9개의 서원이 점진적으로 만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서원의 건립 단계에서 형성된 정형성은 이후의 서원에 강력한 건축적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서원의 배치 정형성을 강화해갔다는 점을 그 가치로 서술하였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ICOMOS의 평가 단계에서 제외되었고 권고안 그대로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서원이 뚜렷한 건축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강학과 제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종적으로 배열하고 그 전면으로 회합 및 유식의 영역을 덧붙이는 배치의 형식을 비롯하여, 사당, 강당, 누각 각각의 건축 형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서원 건축은 표준적이라 할 정도의 유형적 공유를 이루었다. 이는 아마도 같은 이상을 공유하였던 사림 집단 내에서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한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므로[2] 본고에서는 주요한 건축구성의 한 부분인 누각[3]에 집중하여 서원의 건축적 정형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참조점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귀결되는 정침이론의 조선적 모색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서원들 중에서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정립과정」,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10.28. 및 조재모, 「조선중기 서원의 태동과 건축유형 정립」, 2017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7.11.18. 그리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3) 누각은 누마루, 누 등으로도 칭해진다. 여기서는 누각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정형성

주지하다시피, 조선 중기에 한반도에 등장한 서원은 일정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정형성을 이룩하였다. 서원 경역의 전면에는 누각을 두어 외부로의 조망을 획득하면서 서원의 정면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누각의 안쪽으로는 강학영역을 두었는데,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동서재를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3개의 건물이 위요하는 마당을 구성하였다. 그 안쪽으로는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제향영역을 배치하였다. 제향영역은 사당을 중심에 놓고 제사에 필요한 전사청 등이 부속되었다. 이들 누각, 강당 및 동서재, 사당 및 부속시설은 대체로 일직선의 진입축을 따라 정연하게 배열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상호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서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역의 연결과 분리는 지형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형성이 단번에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최초로 건립된 소수서원은 이러한 배치법을 따르지 않았다. 서원의 정문을 들어서면 강학당이 직각으로 엇갈린 동향으로 놓였고, 그 서편에는 담장으로 위요된 문성공묘[4]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강학당과 문성공묘의 북편으로 몇 동의 재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서원들의 배치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 서원이 숙수사라는 통일신라시기의 사찰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고, 당시에는 아직 서원의 건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후 남계서원이 건립되면서 조선적인 서원의 배치법은 그 얼개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남계서원은 서쪽으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동쪽의 언덕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사당을 두고 언덕 아래의 평지에 가까운 땅에 강당인 명성당과 양정재, 보인재의 두 재를 두어 마당을 만들었다.[5] 사당과 강당, 정문이 있던 자리에 나중에 들어서는 풍영루에 이르는 축

4) 문성공묘는 안향을 제향하는 사당으로서, 중종 39년에 安軸, 安輔를 추가 배향하였고, 그 후 인조 11년 주세붕을 배향하였다. 2004년 4월 6일 보물 제1402호로 지정되었다

과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영역을 정연한 일체로 완성한 이러한 배치법은 이후 거의 모든 서원에서 수용된 조선적인 서원 배치법이었다.

〈그림 1〉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배치 정형화 과정

소수서원에서 이미 기능적으로 구비되었던 강학과 제향의 영역은 남계서원에 이르러 정형의 배치법으로 완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참조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향교의 배치법이라 할 수 있다. 향교는 이미 국초부터 전국적으로 건립되었던 바 있으며, 명륜당과 대성전, 즉 강학과 제향이라는 기능과 구성이 영건하고자 하는 서원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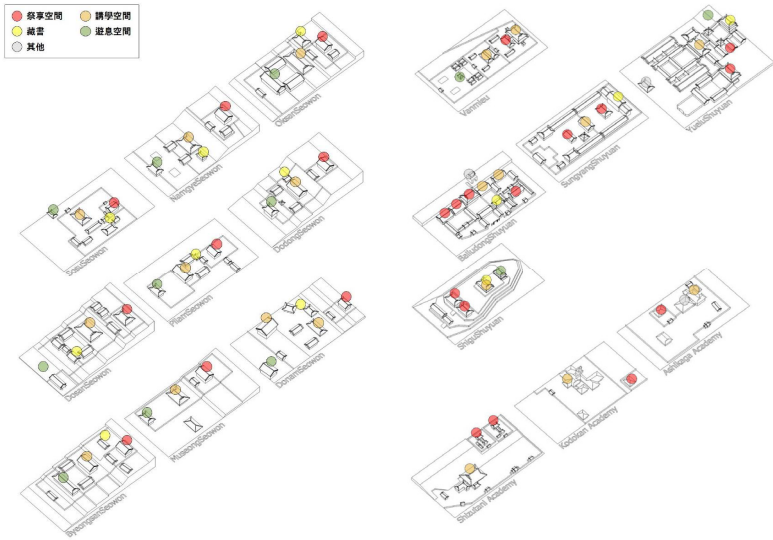
5) 현재의 풍영루는 서원의 건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후에 부가되었다.

향교의 건축을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 서원에 누각을 설치하는 유행이 등장함으로써 향교와는 다른 서원의 특징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립된 조선 서원의 건축술은 서원이라는 기구의 모델인 중국의 서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학궁'이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축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남아있는 서원들을 통해 살펴보자면 상호간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악록서원이나 숭양서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축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서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가장 안쪽에 놓이는 건물의 성격이다. 악록, 숭양서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안쪽에 황제가 하사한 책을 보관하는 어서루 등 장서공간이 배치되었다. 어서루는 서원 내의 건물들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배치상의 위계도 높다. 반면 조선시대의 서원들은 그 위치에 사당을 둔다는 점에서 서원 내의 공간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의 서원에서는 장서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였을까? 출판과 장서는 서원의 고유한 주요 기능이었다. 스승이나 선조를 배향하는 입장에서는 인물 그 자체만큼이나 배향인물의 학문이 중요한 존숭의 대상이었으므로 책의 보관은 매우 중시되는 기능이었다. 다만, 중국의 어서루는 황제가 하사한 책을 보관하는데 비해, 조선의 서원은 제향인의 저술을 중심으로 장서각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건축적으로 볼 때에는 조선시대 서원들은 축선의 곁으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경계부에 장서각 등의 건물을 놓는 예가 많으며, 이는 장서공간이 건축 배치의 초점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서원에서 사당은 때로는 축선의 중간에, 때로는 별도의 축선을 갖거나 축선을 비껴서 자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 서원에서 사당은 그 기능적 중요성과 별개로, 건축 배치의 초점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단순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서원에 국한된 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지형적 조건이나 시기적인 특성 등 많



〈그림 2〉 동아시아의 유교 교육시설 배치의 비교
(좌: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서원 / 우: 베트남 하노이 문묘, 중국 백록동, 숭양, 악록, 석고서원, 일본 시즈타니, 고도칸, 아시카가 학교)

은 논점이 결부되어 있는 지점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모델인 '학궁'을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현실 속에서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이 갖고 있는 정형성은 다른 지역의 서원(혹은 유사한 교육시설)의 정형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형성을 갖고 있다는 점 자체가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서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건축과 배치로 구성되었다. 백록동서원은 계곡을 따라 좌우로 넓게 여러 마당이 결합되는 형태이고, 湘江을 바라보는 절벽에 어서루를 세우고 그 아래로 건물을 배치하는 석고서원은 또 다른 형식이다. 그 밖의 서원들도 서로 유사한 점도 있겠으나 각각의 독자적인 건축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서원의 보편적 모습이라 파악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6)]

민간에 의해 각각 개별적으로 건립된 서원이 개별적인 건축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역으로, 조선시대의 서원들이 서로 배치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별한데, 이는 그리 넓지 않은 국토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학궁으로서의 서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구하거나 상호 방문을 통해 일종의 표준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배치에서만 그러한 정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당, 강당, 누각 등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형성을 공유하였다는 점은 조선시대의 서원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주목점이라 하겠다.

Ⅲ. 서원 누각의 등장과 발전

조선시대 서원이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서원과 다른 특징적 구성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누각을 들 수 있다. 누각은 서원에만 존재하는 건축 유형이 아니다. 산지 사찰의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향교에서도 종종 사용하였던 시설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서원, 향학, 혹은 사찰에 한국 서원에서 볼 수 있는 누각이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누각은 한국의 지역적 건축으로서 여러 시설에 사용되었던 건축유형이다. 문제는 서원을 건립하는 사림들이 왜 누각을 채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무언가 개연성 있는 설명이 드물다는 점이다. 누각을 활용하는 양태, 즉 회합이나 유식의 행위에 대해서 종종 거론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유형이 서원에 등장하는 단계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원에서 누각이 처음 등장한 것은 옥산서원에서였다. 옥산서원이 건립된 시기는 이미 소수서원, 남계서원 등의 경험을 통해 서원에서 필요한 기능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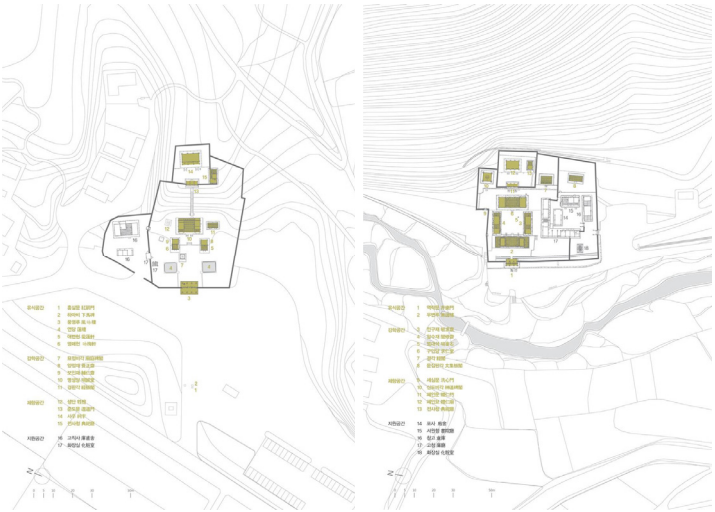
6) 문헌과 사진자료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간의 종류와 그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이다. 새로이 누각을 서원에 도입한 것은 아직 서원의 건축이 완전한 궤도에 올라있지는 않은 단계, 즉 여전히 요구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또 다른 동기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회합과 유식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의 시설은 결국 교육의 철학과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성리학적 교육의 이상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학문을 익혀 궁극적으로 천인합일의 전인적인 이상적 인간을 완성하는데 있다면, 제향을 통한 이상적 모델의 인식, 강학 행위를 통한 학문적 전승에 더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수양에 필요한 유식 행위가 필요하였다. 또한 좁게는 향촌사회로부터 넓게는 국가와 천하에 이르는 성리학적 이상의 확산을 위해 서로 회합하고 공론을 만들어가는 행위 또한 서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출판서적의 장서도 필요한 기능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각의 공간을 필요로 하였는데, 제향을 위한 사당과 강학의 강당은 이미 전단계에서 수립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유식과 회합을 위한 공간은 별도의 고안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의 누각이었다,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강당 구인당과 마주보면서 동서재와 함께 4개의 건물이 중앙의 마당을 둘러싸면서 일종의 합원을 구성하고 있다. 다른 서원들에 비해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구성이라, 누각이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보다는 강학영역의 일부로 느껴진다. '무변루' 편액도 특이하게 입구 쪽이 아닌 반대편 누각의 대청 중앙 안쪽에 걸려있다. 강당의 '옥산서원'과 '구인당' 편액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변루 대청은 바깥으로 판문을 달아 막혀있는 반면, 강당 쪽으로 트이게 개방하여 내부 공간이 강조되었다.[7]

7) '무변루'와 '구인당' 편액은 석봉 한호의 글씨이고, '옥산서원'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그림 3〉 남계서원과 옥산서원 배치도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무변루는 중앙부의 3칸 마루 좌우로 각각 온돌방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는 좁은 마루가 다시 붙어서 모두 7칸의 규모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7칸 규모의 누각은 이후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유례를 볼 수 있지만, 만대루는 모두 마루로만 구성된 통칸의 누각이라는 점에서 무변루와는 차이가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서원 누각들도 별도로 방을 들인 예는 드물다. 특별한 예로 상주 옥동서원의 청월루가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서원의 누각은 드문 예외가 있으나 통칸의 마루로만 구성되는 유형이며 대개 정면 3칸의 규모를 갖는다.

그런데, 처음 등장한 서원 누각인 무변루가 온돌방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지점이다. 이것이 서원에 누각이 등장하게 되는 동인을 암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산서원 이전, 풍영루가 없었던 초기의 남계서원에서도 정식의 누각은 아니었지만 조금 다른 형식의 유식공간이 존재하였다. 바로 애련헌과 영매헌이 그것이다. 애련헌과 영매헌은 동서재인 보인재, 양정재의 일부인데, 각각 방 1칸과 마루 1칸으로 구성된 동서재에서

전면의 방당을 향해 있는 마루 각 1칸에 이들 이름이 붙어 있다. 이름으로 보건대 애련, 영매는 모두 자연과의 조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걸맞게 방당을 내려볼 수 있도록 누마루의 형태로 하부 기단을 조성하였다.[8] 이들 두 헌은 회합을 위해 사용하기는 매우 협소한 면적이었으나 유식의 관점은 반영되어 있었다. 즉, 무변루 이전에도 서원에 유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작은 규모의 동서재인 만큼 평탄 지형을 만들어 건물을 놓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돌방과 마루의 경계부 아래에서 지형을 조정하여 누마루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을 보면, 영매헌, 애련헌은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된 건축이며, 향후 누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식공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무변루가 독립적인 누각의 형태를 취한 것은 이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향교이다. 다만 초기 향교의 누각은 유식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 시기에 존재하였던 향교에서 누각을 갖는 경우는 대개 명륜당, 즉 강당의 기능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향교의 건축이 자리잡아 가면서 점차 기단 위에 놓이는 보편적인 명륜당이 유행하게 되어 누각형 명륜당은 새롭게 건립되는 예가 적어졌지만, 이 형태가 서원 누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시기적으로도 관련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륜당의 기능을 갖고 있는 누각은 대체로 대청과 양쪽의 방이 병존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누각 형태가 아닌 보통의 명륜당 구성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당으로 인식되는 대청에서 강학례를 설행하고 양쪽의 방을 일종의 협실로 이해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서원에 강당이라는 전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누각에 대한 경험이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이었던 까닭에 서원의 유식공간으로 정식의 누

8) 방당을 구성하였던 예는 초기 덕천서원이 있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기록을 통해 덕천서원의 양재 앞으로 방당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4〉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사례
(담양향교, 강릉향교, 회인향교, 옥과향교 명륜당)

각을 조성할 때 이러한 유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누각형 명륜당인 강릉향교 명륜당이나 회인향교 명륜당을 보면 서원의 강당과 누각 양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누각형 명륜당이 건물의 뒤쪽, 즉 동서재 방향을 향하여 정면성을 갖고 있는 점도 무변루와 유사한 점이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초기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으로부터 무변루와 같이 온돌방을 포함한 서원 누각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서원 누각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 정면 3칸, 때로는 5칸의 규모를 통칸으로 마루를 놓아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서원 누각의 전형이었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무변루와 같이 정면 7칸의 대규모 누각인데 방을 두거나 판문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방형 누각의 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옥산서원 무변루와 옥동서원 청월루

다만, 상주 옥동서원의 청월루에는 예외적으로 온돌방을 두었다. 옥동서원은 1714년에 백옥동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승원되어 서원의 위상을 갖추었고 32년 뒤인 1746년에 황효헌과 황뉴 두 분을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였다. 1789년에는 사액을 받아 옥동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청월루는 1792년에 준공되었다.[9] 백옥동서원으로의 승원을 기준으로 보면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초기 서원 설립운동의 분위기는 지역서원, 문중서원으로 전환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설립된 서원이지만, 그 이전 방촌의 영정을 봉안한 백화횡당의 운영과 백옥동영당에까지 올려본다면 기점은 16세기 중반으로 올라간다. 건축적으로 보면 승원 이후 묘우의 이건, 강당의 준공을 이루었다. 다만 동서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서원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월루는 상하층을 가진 중층 누각의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총 10칸 규모로서, 하층에는 중앙부 3칸에 회보문을 설치하였고, 그 좌우로 상층의 온돌방을 위한 아궁이가 시설되어 있다.[10] 상층에는 전체적으로 마루를 조금 더 확장하여 계자각으로 난간을 둘렀다. 중앙부의 회보문 위는 마루를 놓았고, 양쪽 각 1칸은 온돌방을 들였다. 방의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놓았는

9) [옥동서원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조재모, 「상주 옥동서원의 건축과 청월루」, 『방촌 황희의 리더십과 향사서원』, 보림에스앤피,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10) 고설식 온돌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데 구조적으로 완전한 툇마루는 아니고 측면 2칸의 양통 주열 중 앞쪽 칸의 중앙부에서 샛기둥을 놓아 분할한 것이다.

청월루로의 진입은 좀 특별한 방식이다. 회보문을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 강당이 있는 마당으로 간 뒤, 청월루의 측면으로 돌아가서 작은 계단을 통해 전면 툇마루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진입은 다른 서원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진입 위치가 전면 툇마루라는 점은 이 누각의 정면성이 분명히 서원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월루라는 편액 또한 무변루와 달리 서원 전면부를 향해 걸려 있다.

즉, 청월루는 무변루와 언뜻 유사한 건축유형으로 보이나 많은 면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서원 누각이다. 무변루가 정면, 즉 서원의 외부쪽으로는 대단히 폐쇄적인 입면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청월루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지붕의 형식도 다르다. 무변루는 맞배지붕으로 중앙부 5칸을 덮었고, 양 끝단의 각 1칸에는 부섭 형태로 지붕을 올려 마치 '하옥'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정침, 즉 강당의 모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청월루의 경우에는 팔작지붕으로 하였다. 안쪽의 강당과의 관계도 동서재가 없기 때문에 개활적인 모습이다.

청월루 양쪽의 온돌방에는 진밀료, 윤택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들 방의 이름은 '료'로서 거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의 해석으로는 서원 설립 이후 뒤늦게 청월루를 세우면서 동서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방을 들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옥산서원, 옥동서원 누각의 방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몇몇 문집에서 옥산서원을 방문하였을 때 무변루에서 유숙하였던 기록을 찾을 수 있어 참고가 된다.[11)]

---

11) [東林先生文集] 卷之一 宿玉山無邊樓 "洞門遂復白雲深. 薄暮行穿萬木陰. 宵卧聽泉秋壑. 晨興看出碧千尋. 思賢益切迷方恨. 著靜須知有道心. 最愛一樓臨水處. 憑欄終日洗煩襟." / [尼溪集] 卷之三 宿無邊樓. 曉起漫吟."主人報我雨來聲. 五漏方殘旅夢驚. 誰解林梢風力緊. 聊言簾隙月光明. 天方氣朗羊何舞. 時已朝平魄未生. 分付心君須着念. 錯料凡事摠非誠." / [寓庵先生文集] 卷之二 李朴兩生. 留無邊樓. 終日無讀書聲. 題贈警睡."齋散儒宮靜. 山空宿雨晴. 無端樓上客. 和睡聽溪聲." 등.

요컨대, 옥산의 무변루, 옥동의 청월루는 서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각각 서원 누각의 역사적 발전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변루는 처음 서원에 누각을 받아들이면서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강당과 동서재를 갖추고 있었던 서원의 건축에서 향교 누각형 명륜당의 양쪽 온돌방, 즉 협실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생략하여 개방적인 누각으로 발전하였다. 서원의 누각이 주로 3칸의 정면규모를 갖게 된 것은 무변루의 대청 3칸이나 정침의 당 규모인 3칸을 차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청월루는 동서재가 없는 상황에서 누각을 건립하면서 다시 양 협실을 들인 형식을 소환하여 적용한 것이었다. 논증하기는 어려우나 상주 일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고설식 온돌의 기술을 함께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서원의 누각은 조선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건축보다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향교로부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누각은 조선시대의 단층 중심의 건축문화에서 특별히 중층의 구성을 갖는 유형이다.[12] 신분과 기능에 따른 위계질서가 물질문화의 하나인 건물의 규모를 균제하기도 하였거니와, 온돌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은 단층으로 조성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중층의 살림집이 조성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나, 점차 단층이 주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온돌의 영향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사적 경향에서 서원의 정면에 누각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12) 여기에서 중층이라는 어휘는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적층된 층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쓴다. 한편, 건축구조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사용 양태와 관계없이 처마와 지붕의 적층만으로 중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하층을 진입통로로, 상층을 머무르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층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하나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반면 창덕궁의 인정전 등은 실내공간은 상하층의 구분 없이 통층으로 사용하지만 지붕은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는 중층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전자를 층(層), 후자를 중(重)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쓴다.

기능적인 쓰임새 이상의 의미가 있다. 누각을 세움으로써 서원의 정면을 당당한 모습으로 구현하였고, 경계부 높은 위치에서 서원의 안과 밖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유식의 장소를 만들었으며, 서원의 경내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고 안온한 학습의 공간으로 정돈하는 등, 조선 서원의 누각은 서원 건축의 한국적 지역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건축 유형이다.

Ⅳ. 정침 이론의 모색과 지역 모델

이렇게 발전해온 조선시대 서원의 건축은 전체적인 배치와 누각의 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지역성을 띠고 있었다. 강당과 동서재는 온돌과 마루를 결합하여 주택과 유사한 평면 마감으로 구성되었고 신발을 벗고 올라 좌식으로 공간을 사용하였다. 의식공간의 성격상 신발을 신고 의관을 갖추어 예를 행하는 장소이지만, 신발을 생략하고 완전히 좌식으로 공간을 쓰는 것은 한국의 오랜 주택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보편성 속에서 학궁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근본적으로 유학의 공간은 행례의 장소여야 했다. 의식은 참례자들의 행위에 대해 그 위치와 방향, 상호간의 공간적 관계 등을 세세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조오례의 등의 관찬 의식서를 살펴보면 시간대별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례자들의 기다리는 자리, 움직이는 동선, 의식에서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가구 뿐만 아니라 음악과 향 등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공감각적 장치는 어떤지, 의장대나 호위군사의 지물은 각각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예의 실천이라는 것이 신분이나 관계, 장소와 의식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행위규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득기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13]

그런데 이러한 세밀한 규정이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완숙하게 체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국초에는 필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논의를 거듭하면서[14] 왕조의 국가전례를 다듬어갔고, 이러한 성과는 특히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세종실록의 오례의는 당시까지의 의주 정비를 일별한 것이었고,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의 근간이 되었다. 국조오례의의 성립 이후에도 여기에 누락된 의절들이나, 왕세자의 섭행 등 변통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의주를 정리하여 행례하였다. 누적된 변화들은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오례통편 등을 통해 개정과 정리를 거쳤다. 국가전례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사가나 서원 등에서도 점차로 유교적 의례가 확산, 정착되어 갔으며, 가묘의 설치 등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맞는 공간적 세팅이 필요하였다. 궁궐의 경우에도 태조년간에 조성된 창건 경복궁이 정전, 보평청, 연침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세종대의 경복궁 개영 작업을 거쳐 비로소 정식의 원활한 행례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15] 상참례를 위한 사정전의 개영, 내전 의례의 정비와 강녕전 개수, 문소전, 계조당의 건립과 정비 등은 모두 이러한 과정이었다. 국조오례의에는 궁궐 외에도 민간의 건축공간과 연관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이나 왕자공주군의 결혼은 왕실과 민간이

13) 조선시대 궁궐의 의식과 공간 관계에 대해서는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 운영과 건축규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14) 강제훈, 「조선초기의 조회의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 「조선초기 정지회례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및 「조선초기 국가의례 정비의 지향과 원칙」, 『민족문화연구』 6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5) 세종대의 의례정비와 궁궐건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찌기 김동욱, 조재모 등의 연구가 있었고, 의례 정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다.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한국건축역사, 2002 : 조재모, 앞의 논문, 2003 및 강제훈, 「조선 세종조의 국가례 정비와 오례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고려사학회, 2021 등.

함께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의 개영을 거쳐 궁궐 내의 건축공간은 대체로 정비되어 있었지만 민간의 모든 건축공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왕실 혼례에서 왕비제택은 여러 겹의 문과 정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16] 필요에 따라 장막이나 발을 설치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이 많았고, 이는 궁궐이라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일례로 흉례 과정에서 염습을 하는 공간이나 빈전 등에서 인용된 의식의 규정과 같은 형태의 건축공간이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형식에 맞는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가설물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때로는 건축공간을 개변하기보다는 의주를 변통하여 지역화하는 일도 있었다. 동뢰연의 경우 세종9년에 처음 도입한 의주에는 동방, 동서상, 실 등 여러 단위공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건축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오례의의 동뢰연에는 이 의절을 변경하여 실, 동서상 등의 명칭이 제외된 대신 동방으로만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서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당의 경우, 소수서원에서부터 이미 3칸의 유형으로 정립되어 큰 변동없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사당의 의례가 이미 충분히 이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건축적으로 큰 변위가 없는 작고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반면 강당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서원 내에서 의례 공간의 건축적 실현 문제에 대해서는 강당에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원의 강당 또한 사당이나 누각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면 5칸에 중앙부 3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양쪽 각 1칸에 온돌방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다. 위치상으로는 문이나 누각으로 조성되는 서원의 입구로

16) 퇴계는 조선에서 정침이라 할만한 곳이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민간 사가의 식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옥의 안채 등을 정침으로 지칭하여 활용하고는 있지만, 건축의 유형으로 볼 때 완전한 정침의 구성을 갖고 있는 예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7) 의주 변경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장막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일은 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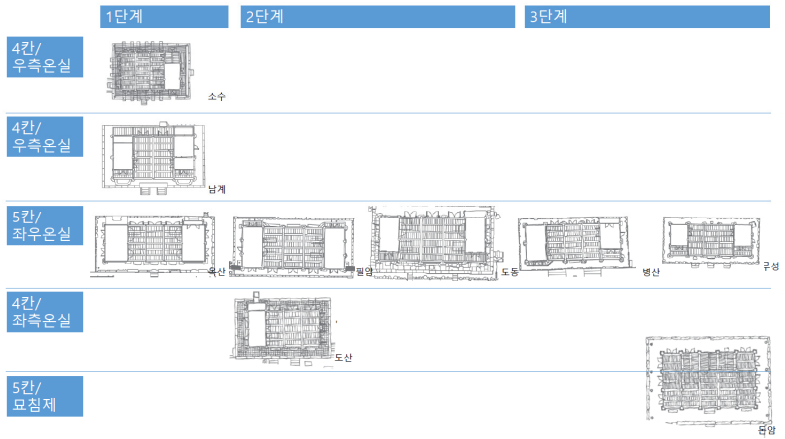
부터 사당에 이르는 축선 중심에 강당을 놓고, 그 앞쪽 혹은 간혹 뒤쪽[18]으로 동서재를 놓았다.

〈그림 6〉 소수서원, 남계서원, 도산서원의 4칸 강당

다시 소수서원으로 돌아가보면, 강학당은 4칸일뿐만 아니라 좌우의 대칭성을 갖고 있지 않고 방을 오른쪽에만 한칸 두고 나머지 3칸을 대청으로 꾸렸다. 소수서원은 그 배치가 서원의 전형적 배치수법과는 다르고 강학당의 정면 또한 진입축 방향과 직각으로 틀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강학당의 평면의 유래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강당의 전형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며, 진입축 방향으로 좀 더 개방적인 구성을 의도하였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남계서원의 명성당 또한 4칸의 정면을 가지고 있다. 중앙부 2칸에는 대청을, 양쪽 각 1칸에는 온돌방을 들인 형식이다. 도산서원의 전교당도 정면 4칸인데, 소수서원 강학당처럼 한쪽에만 방을 놓고 나머지 3칸을 대청으로 하였지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여서 온돌방이 왼쪽에 놓였다. 19세기의 서원철폐령 이후 남은 서원뿐만 아니라 재건된 서원을 포함하여 현존 서원을 일별한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5칸 강당 외에 4칸 강당도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있

18) 장성 필암서원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지형적으로 평탄한 곳에 서원을 건립할 때 앞 건물에 의해 뒷 건물의 시선축을 가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당과 강당의 축선을 달리하곤 하였다. 성균관에서는 대성전을 명륜당보다 앞쪽으로 위치시켰고, 이는 호남 일대의 여러 향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림 7〉 서원 강당 평면형의 정착과정

다.[19] 다만 4칸 강당이라도 대부분은 중앙의 대청을 2칸으로 하고 양쪽에 온돌방을 놓는 방식이다.

초기 서원에서 확인되는 4칸 강당 중 소수 강학당과 도산 전교당은 대청이 3칸이라는 점에서 이후 전형으로 자리잡는 5칸 강당의 대청부와 공통된다. 반면 남계 명성당은 좌우에 방을 놓았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각각의 유형적 특징은 서원 강당의 전형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서원의 강당은 초기의 한쪽에만 온돌이 있거나 대청을 2칸으로 하는 등 4칸 강당의 시도가 있었으나 곧 5칸 강당이 전형으로 자리 잡아 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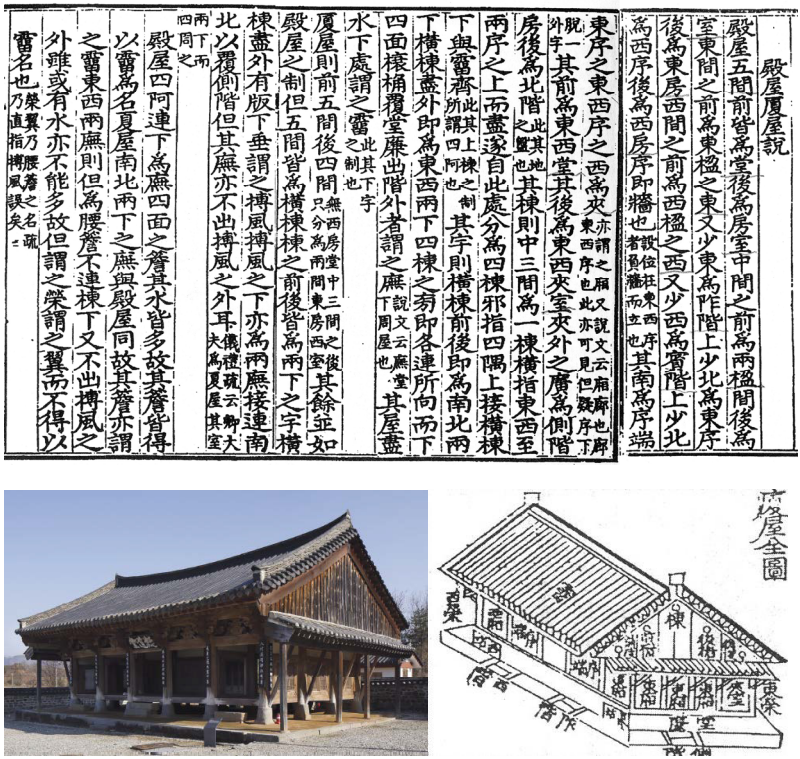
그런데 5칸 강당의 건축유형은 서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꼭 5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놓고 좌우에 대칭적으로 온돌방 혹은 부속실을 들이는 것은 궁궐의 침전이나 객사, 향교의 명륜당 등 격식을 요구하는 건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전각 유형이다. 시기를 올려보면 고려시대의 개성 본궐의 발굴 조사에서도 중앙부 몸채에 좌우 익실을 두는

19) 김은중, 「朝鮮時代 私學建築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형태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또한 고대 중국의 정침에서 당은 가운데에 2개의 기둥, 즉 영(楹)을 놓은 3칸의 평면이고 그 양쪽에 협실을 두었는데, 5칸 강당은 이러한 정침의 당 구성과도 유사하다. 을 말하자면 이러한 구성은 오랜 연원을 갖는 고식의 평면형이라 할 수 있다.

서원에서 결국 이러한 유형을 선택한 것도 이 평면유형에 대한 경험과 건축적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의 여러 시도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강당은 본질적으로 강학의 예를 구현하는 장소이다. 고대 정침의 평면은 여러 방식의 행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인이 빈객과 만날 때 정침 앞에서 동서로 마주하여 각각 조계와 빈계를 나누어 당에 올라 상읍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주인이 당의 호유지간, 즉 북벽의 중앙에 자리하고 앉는 방식이다. 다시 궁궐의 예를 들면, 임금이 참례하는 대부분의 의식은 후자의 방법에 가깝다. 어좌를 북벽 중앙에 놓는 것은 대부분의 의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이고, 실제 공간도 이와 부합한다. 원래의 창덕궁 편전인 선정전이 아닌 성정각 등에서 행례할 때나, 왕세자의 행례일 때, 혹은 근대기 의주에서 외국의 사신을 만다는 의절 등에서는 동서로 벌려 앉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강학례는 전자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 서원의 강당에는 앞쪽에 동서로 2개의 계단을 두어 당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벽에 선생이, 서벽쪽으로 학생들이 앉아 강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공간 사용의 방법이다. 이를 다시 4칸의 강당에 적용하여보면, 우선 소수 강학당과 도산 전교당은 대청이 3칸이므로 5칸 강당의 행례와 다를 바 없다. 남계 명성당은 중앙부 2칸에 각각 계단과 섬돌이 있어 승당하는 행위는 잘 구현된다. 또한 굳이 호유지간의 북벽 중앙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동서로 자리를 마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칸 강당보다 5칸 강당이 최종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건축적 상식에 기인한다. 당장 남계서원의 명성당은 중앙부에 현판을 걸지 못하여 '남계', '서원'을 각각 나누어 걸었고, 당호 또한 북벽의 동편으로 치우쳐 있어 시각적으로 편안하지 못함


殿屋厦屋說
殿屋五間前皆爲堂後爲房室中間之前爲兩楹間後爲室東間之前爲東楹之東又少東爲阼階上少北爲東序後爲東房西間之前爲西楹之西又少西爲賓階上少北爲西序後爲西房序卽牆也設位柱東西序而立也其南爲序端
東序之東西序之西爲夾亦謂之廂又說文云廂廊也廊東西序也此亦可見但疑序下脫一字其前爲東西堂其後爲東西室夾室夾外之廣爲側階房後爲北階此其地之位也其棟則中三間爲一棟橫指東西至兩序之上而盡遂自此處分爲四棟邪指四隅上接橫棟下與簷齊此其上棟之制所謂四阿也其宇則橫棟前後卽爲南北兩下橫棟盡外卽爲東西兩下四棟之宇卽各連所向而下四面接桷覆堂廉出階外者謂之廡說文云廡堂下周屋也其屋盡水下處謂之霤此其下宇之制也
夏屋則前五間後四間無西房堂中三間之後只分爲兩間東房西室其餘並如殿屋之制但五間皆爲橫棟棟之前後皆爲兩下之宇橫棟盡外有版下垂謂之搏風搏風之下亦爲兩廡接連南北以覆側階但其廡亦不出搏風之外耳儀禮疏云卿大夫爲夏屋其室兩下而四周之
殿屋四阿連下爲廡四面之簷其水皆多故其簷皆得以霤爲名夏屋南北兩下之廡與殿屋同故其簷亦謂之霤東西兩廡則但爲腰簷不連棟下又不出搏風之外雖或有水亦不能多故但謂之榮謂之翼而不得以霤名也榮翼乃腰簷之名號乃直指搏風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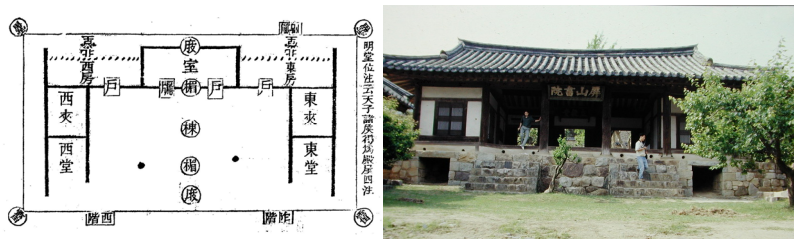
〈그림 9〉 주희, 「전옥하옥설」, 돈암서원 응도당, 『가례집람』 하옥전도의 비교

이 있다. 홀수 칸으로 전각을 만드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구성법이다. 오히려 남계 명성당 등에서 2칸 대청으로 중심성을 약화시키면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행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간 구성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20]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고대 정침의 구성과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정침은 당과 양협실만이 아니라 북편으로 실과 방이 함께 구성된 평면이다. 신분에 따라서 황제와 제후의 정침은 좌우방제, 즉 전옥으로, 경대부

20) 소수 강학당, 도산 전교당 등 소위 편실형의 4칸 강당은 대청이 3칸으로 홀수칸이라 현판을 거는 등 중심성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다.

및 사의 정침은 동방서실제(혹은 일방제), 즉 하옥으로 그 평면을 달리하였지만, 실과 방을 놓아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21] 실상 서원의 강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정침 자체의 건축이론을 탐색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구성의 정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여 행례의 공간으로 삼고 싶은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8〉 정침평면도와 병산서원 입교당

가장 대표적인 '구현된 정침'은 돈암서원의 응도당이다. 응도당의 평면은 정면 5칸인 것은 다른 서원의 강당들과 같지만, 측면이 3칸으로 꽤 큰 편이다. 또한 당의 뒷편으로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된 일렬의 공간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공간만 후면으로 개방되어 있는 독특한 구성이다. 전면부로는 좌우측 양단에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면서도 앞쪽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평면 구성은 한국 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22] 고대 정침의 구성을 완전히 구현한 것이다.[23] 정면에

21) 하옥은 경대부 및 사 계층의 정침이고 전옥은 천자와 제후의 정침 평면 유형이다. 주희, 전옥하옥설 및 이여규, 의례석궁 등 참조.

22) 만동묘의 경우 원래의 건물은 소실되었으나 초석의 배열 등으로 볼 때 유사한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형되어 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유사한 구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가 일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23) 다만, 이는 문헌적으로 이해된 정침이다. 발굴조사에 의해 고대 정침은 후한대 이래로 학자들이 문헌적으로 논증해왔던 평면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러

서 보아 중앙부 3칸의 대청은 당으로, 좌우 측단의 각 1칸은 동서상(혹은 협실)으로, 당 뒷편의 분할된 공간은 동방서실의 정침 구성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평면 뿐만 아니라, 지붕의 구성에 있어서도 하옥의 지붕인 양하, 즉 맞배지붕을 올리고 양단에 부섭을 달아내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다.[24)]

다만 고대 정침의 경우 흙벽돌을 이용한 구조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5칸, 후면에서 4칸인 하옥을 구성하였던 것인데, 이를 조선에서 주로 사용되던 완전한 목구조의 건축술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 정면과 후면의 칸수를 동일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은 목조건축에서는 난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기둥은 원래의 방식으로 정치시키되,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위치만 하옥의 평면을 따르는 변칙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실내공간의 바닥 또한 마루로 마감되어 조선식의 건축 특징을 보여준다.

고대 정침을 조선의 건축기술과 관습에 맞추어 변통한 돈암서원 응도당의 건축실험은 조선의 서원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종방향의 건물 규모가 훨씬 커야 했던 이 평면형은 지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지만, 그만큼 쓸모 있는 구성은 아니었다. 조선의 건축은 물론 중국에서도 이러한 구성법은 흔치 않은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문헌상으로 추론된 것일 뿐,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정침의 실체와도 다른 모습이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도당의 실험은 조선의 서원건축이 지향했던 두가지의 방향성, 즉 원론적인 학궁의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조선적인 건축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바를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 실제 존재했던 정침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들 또한 문헌 탐구를 통해 정침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 이에 관해서는 정기철, 앞의 논문 참조. 문헌사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돈암서원 응도당의 정침이론 수용에 대해 상세히 논증되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의 서원건축은 학궁을 구현하여 강학과 제향의 예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 속에서 발전하였다. 소수서원이 건립된 이래 여러 서원의 영건 과정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배치법을 찾아내었고, 직선 축에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앞뒤로 배열하면서 지형 등을 이용하여 구분, 연계하는 수법은 급속도로 공유되었다. 그 와중에 옥산서원 무변루가 등장함으로써 서원에 누각을 건립하는 유행이 시작되었고 이는 다시 전국적인 유행으로 연결되었다.

서원의 누각은 향교의 누각형 명륜당의 경험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 무변루에서 양쪽에 온돌방을 들이고, 중앙부에 3칸의 대청을 둔 것은 향교의 명륜당 평면과 매우 닮아있다. 멀리는 고대 정침의 평면형이나 궁궐, 객사의 사례들과 연결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별도의 강당을 보편화하기 시작한 서원에서는 누각의 방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이후의 서원들은 옥동서원 청월루와 같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를 마루로 마감하는 개방적인 누각으로 전형화되었다. 서원의 건립을 고민하였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이었을 것이나, 그 건축의 수법은 조선적인 특색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돈암서원 응도당으로 대표되는 고대 정침의 건축적 실천도 주목되어야 한다. 강당, 사당, 누각, 동서재 등이 완비된 서원의 건축적 전형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정침을 구현하여 학궁에서의 예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는 학문적인 욕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응도당이다. 이론적으로 해석된 정침의 구성을 구체적인 건물로 실현하는데에는 결국 지역의 건축술이 개입될 수 밖에 없었고 응도당은 완전한 목구조에 마루로 마감한 조선적인 건축 수법으로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東林先生文集』
『尼溪集』
『寓庵先生文集』
朱熹, 「殿屋廈屋說」
李如珪, 「儀禮釋宮」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옥동서원지』
『옥산서원지』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강제훈, 「조선초기 정지회례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강제훈, 「조선초기의 조회의식」,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 『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김봉렬, 『서원건축』, 대원사, 2006.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은중, 「朝鮮時代 私學建築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4.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箱崎和久, 『近世の學校建築』, 至文堂, 2011.
楊愼初, 『中國書院文化与建築』, 湖北教育出版社, 2002.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2.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도구」, 『역사민속학』, 2007.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00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특히 사림의 건립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 197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정명섭, 「경북지역의 서원건축」, 『향토사연구총서』 제4책, 1993.
정명섭, 「서원건축 강당의 개구부 변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정명섭,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 건축의 청방간 개구부 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2.
정순목,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조규화, 정정남, 「조선후기 고설식 온돌구조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17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조상순, 「조선 중기 이전 향교건축의 형성과 전개－관련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재모, 「덕천서원의 건축_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역사의 흔적」, 『덕천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조재모, 「상주 옥동서원의 건축과 청월루」, 방촌 황희의 리더십과 향사서원, 보림에스앤피, 2021.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규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재모, 「조선중기 서원의 태동과 건축유형 정립」, 2017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7.11.18.
조재모, 「좌식공간관습의 건축사적 함의」, 건축역사연구 21권 1호, 2012.
조재모, 「한국서원건축의 유형정립과정」,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10.28.

Abstract

The Regionality of Seowon architecture during Joseon Dynasty focused on lifted pavilion and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Cho, Jaemo*

This paper is on the Korean locality of seowon architecture of Josen dynasty. Although Seowon of Joseon dynasty has its origin at Chinese shuyuan 書院 of Tang-Song 唐宋 period based on xuegung 學宮 of the conceptual model of school architecture, those of each region has its own locality influenced by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custom. It is the common feature of almost all building types such as palace, shrine and so on. In case of Seowon, we can focus on installation of lifted pavilion 樓閣 and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正寢 with normally using wooden floor and ondol, the Korean traditional floor heating methodology.

The lifted pavilion used in seowon is outstanding feature showing the idea of Joseon seowon for harmony with surrounding nature and landscape. That is developed from the origin of lifted type myeongryundang 明倫堂, the lecture hall of Hyanggyo 鄕校 of national school of the dynasty located at local cities. Mubyeonlu 無邊樓 of Oksan seowon 玉山書院 that has each ondol room on both side of 3-bay central main hall of pavilion is similar to myeongryundang model. It is a kind of general building type used at palatial chambers and national gest house of gaeksa 客舍 sharing the origin of ancient Chinese

* Professor, Kyungpook Nationmal University / zozemo@knu.ac.kr

zhengqin. But most of pavilion of seowon during Joseon dynasty didn't use this type of pavilion of two rooms because lecture hall of seowon from same origin has rooms and floor heating on lifted level was difficult to make technically. So the open type pavilion without rooms, wall and any windows was adopted as the prototype of seowon pavilion.

Also reinterpretation of zhengqin to Joseon society might be focused on. Although the seowon layout model had been settled to locality of seowon architecture, they needed the ultimate principle of xuegung for perfectly decent ritual ceremony. Don'am seowon Eungdodang 遯岩書院 凝道堂 is the outstanding example showing this concept. For installation of conceptual model of zhengqin to real architecture, they had to use the local technology and Eungdodang was built as Joseon's local type zhengqin architecture.

Key word : architecture of Seowon, lifted pavilion, Zhengqin, locality

논문 투고일: 2022. 10. 18 심사 완료일: 2022. 12. 21 게재 확정일: 2022. 12. 22